



2017년 4월 09일(제818호)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미예수님!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성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주간은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의미 깊은 주간이며,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심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러한 성주간 시작의 날인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수난기를 듣게 됩니다. 동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시고, 변덕스러운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확정받게 되었으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에게까지 조롱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환영했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군중이 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이를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승리와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희생과 나눔,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용서,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거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잔인하고 무서운 외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영광과 승리만을 바라다면, 부유함과 편안함을 얻는

것만을 바라다면 우리는 쉽게 신앙을 잃고 말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느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다른 이들을 누르고 억압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과 용서 대신 미움과 분노, 무관심으로 다른 이들을 대합니까? 포용과 인정 대신 비난과 멸시, 시기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였던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 자신을 배반하고 다가온 이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당신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때때로 아니 수없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랑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성주간이 예수님의 수난에 담겨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호(비오로) 신부
필벽(육군 제23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50,4-7

회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 시

필리 2,6-11

복음 본문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영성제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를 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그리스도께로 향한 신앙고백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성격을 띤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홀로 거룩하시도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제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요한 6,69)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홀로 죄가 없으신 분”(요한 8,46)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홀로 주님이시며” 에서 ‘주님’이란 칭호는 황제들이 소유한 고유한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인간도 자신을 주님으로 감히 행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러한 영광을 스스로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위치를 선포합니다. : “홀로 높으시도다.” 모든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와 비교할 자가 없으며 그에게 접근할만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고백은 이제 그 실제적인 배경을 잃어버렸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의 사람들에게도 거짓 우상들이나 유혹하는 이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삶에서 “주님 당신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높으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심장한 찬미가로서의 대영광송은 모차르트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창작의 소질을 발휘하여 불멸의 음악과 수많은 작곡을 하는데 늘 충동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 세기를 거쳐 오면서 이 찬미가가 신자들의 확고한 기도로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대영광송은 다른 어느 그리스도교의 찬미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구원된 자들의 고유한 찬미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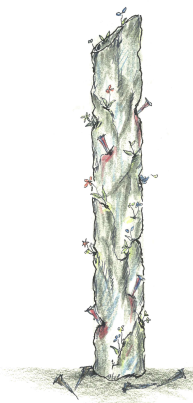
대영광송

찬미가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라는 삼위일체의 신앙고백 양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오래된 그리스도교 찬미가를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향한 참된 찬송은 읊조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영광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박해시대에 순교하는 처형장에서 드리는 하느님 찬송이 다르게 울리고 오늘날 직장인들의 일상에서는 또 다르게 울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짐이나 병고, 정신적 고통을 묵묵히 견디어 내는 것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도 글로리아 곧 하느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전례 안에서 대영광송을 바치는 방법으로는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가 시작하고 선창 다음의 이어지는 부분은 회중이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회중과 성가대가 교대로 부르거나, 성가대가 홀로 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이나 내용으로 보아 대영광송은 교회의 축일에 공동체가 다함께 부르는 축제의 노래이기에 성가대만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좋지만 장엄성의 기준은 성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의 본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있으므로 장엄성도 살리고 공동체 성가의 특성도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또는 성가대와 공동체가 노래를 번갈아 가며 교대로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활이나 성탄 축일 처럼 교회의 가장 성대한 축일에는 성가대만이 아닌 신자들이 모두 함께 불러 축제의 성격을 더 한층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정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꽃 기동을 꿈꾸며

언젠가
저 기동도
꽃으로 뒤덮여,
꽃 기동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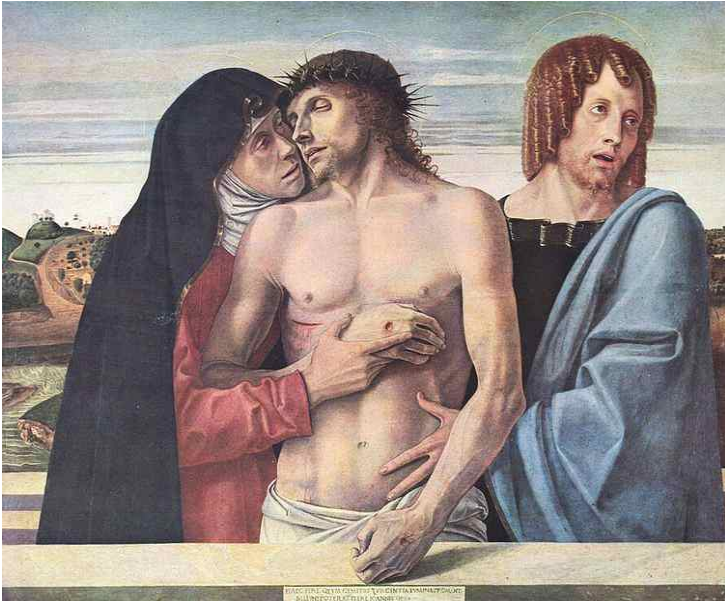
참 힘든 시간을
견뎌 온 기동에
새로운 희망을
담아봅니다.

아직도
뽐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지만,
변해 가겠지요.

이쁘고,
보기 좋은
꽃 기동으로 말입니다.

상화이야기

피에타



지오바니 벨리니(1426-1516)
1460년 작
패널 위 템페리 107 X 86 cm
브레라 미술관, 이탈리아 밀라노

그림 왼쪽의 성모님은 예수님의 몸을 온몸으로 지지하고 계시지만,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미 숨을 거두시고 얼굴색마저 변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모님과 깊은 대화를 조용히 나누는 듯이 보인다. 오른쪽의 사도 요한은 하늘을 원망하듯이 바라보고 있다. 화가는 인물들을 화면 전면에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인물들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의 아래쪽을 장식하는 석조 난간 같은 장치는 고대 로마 황제의 초상화에서 비롯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상이다. 이러한 난간은 그림에 일종의 위엄을 부여하며, 또 다른 세계로 열린 창임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이 난간에는 라틴어가 적혀있다.

“(눈물로 가득하여) 부어오른 눈들이 탄식을 불러올 때, 지오바니 벨리니의 이 작품도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 글귀 위에는 (못으로 뚫린) 예수님의 손이, 그 위에는 사도 요한의 손, 그리고 성모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다시 한번 교차하면서, 또 하나의 무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석관의 글귀를 보여주는 세부도를 보면, 예수님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예수님의 의복을 적시고 있고, 예수님 손의 못 자국에서 흐른 피가 예수님의 팔뚝을 따라 흘러 굳어 있음을 화가는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화가 개인의 깊은 신심과 묵상과 기도가 이 그림에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상요셉(부시교) 히말리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골(3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9일(주일)

◆ 상유축성미사

때: 4월 11일(화) 11:00
곳: 선봉대 성당

◆ 상주진 및 부활 전례(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4월 13일(목), 20:00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4월 14일(금), 15:00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4월 14일(금), 20:00
-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4월 15일(토), 20:00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